

'90 世界經濟展望

— 美國·日本·EC·아시아·소련 및 동구권 경제 전망 —

1. 美 國

美國의 景氣는 減速傾向이 뚜렷해져 '90년 상반기에는 景氣의 上昇速度가 한층 鈍化되겠지만 '90년 하반기에는 다시 上昇커브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달러高의 影響으로 貿易收支는 개선되지 않고 美國議會를 중심으로 日本에 대한 反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월 下旬에 열릴 예정인 美·日構造協議에서 좋은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슈퍼 301條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美國內에서는 10월의 中間選舉를 앞두고 美·日貿易不均衡問題가 크게 浮刻될 것으로 예상된다. '90년의 美國經濟에 대해 經濟專門家와, 시장관계자들은 一般적으로 1.5~2%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를 비롯하여 철강, 컴퓨터관련의 업종이 惡化되고 있는데다 지금까지 牽引車 역할을 해온 輸出과 設備投資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서기 시작한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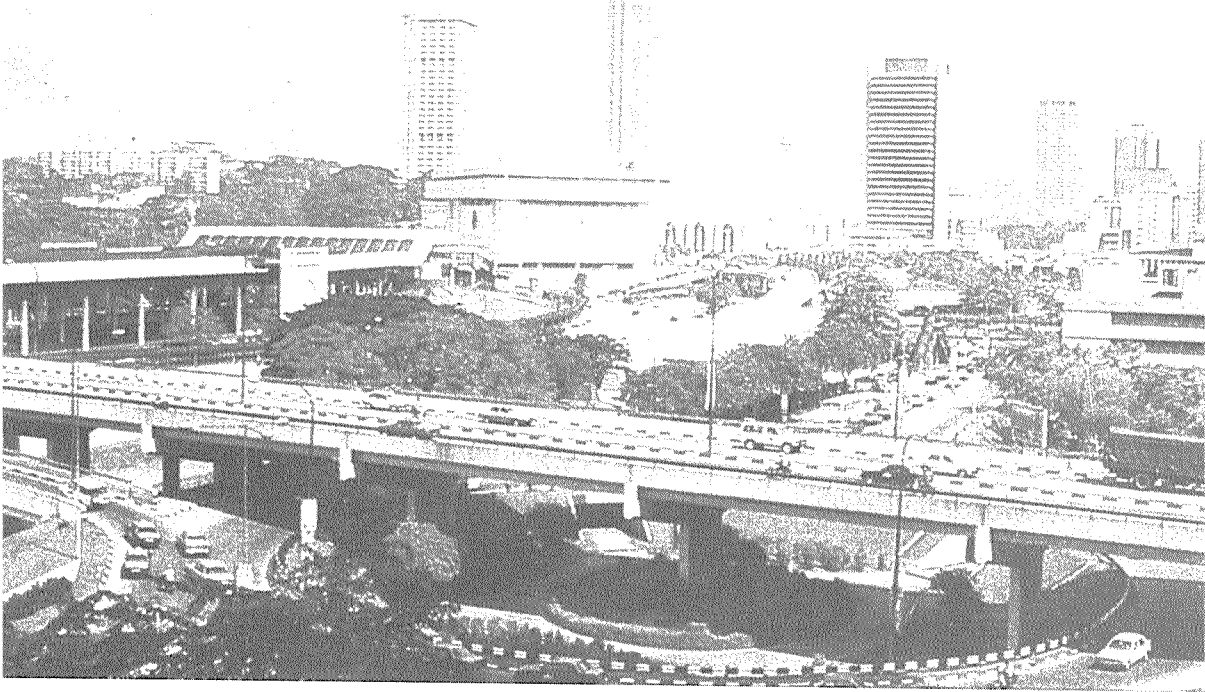
美國의 유력한 調查會社인 볼루칩社가 작년 12월 美國의 대형 金融市場, 大企業 등 50個社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년도 實質經濟成長率의 豫測은 平均 1.7%로 나와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의 경기하강을 이어 받아 금년 1.4分期는 1.3%로 떨어지겠지만 2·4分期 1.7%, 3·4分期 2.0%, 4·4分期 2.4%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消費者物價上昇率)은 4~4.5%의 範圍에서 높아지며 특히 하반기에는 景氣가 好轉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惡化될 憂慮가 있다. 이에 따라 美聯邦準備理事會(FRB)는 상반기에 계속 金融을 緩和하여 페데럴 펀드(FE) 金利는 7.5~7.75% 정도까지 下落, 再割引率도 1~2월경에 한번 내리게 될 것이라고 一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貿易赤字라 할 수 있다. 國際通貨基金(IMF)의 전망에 의하면 美國의 經常赤字는 '89년의 1,251億 달러에서 '90년에는 1,387億 달러로 惡化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共同體(EC)와의 貿易收支가 黑字로 전환됨에 따라 공격의 화살이 日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財政赤字에 대해서는 밝은 展望이 나와 있다. 美·蘇의 冷戰終結, 유럽의 접근에 따라 체니 美國國防長官이 '92~'94 財政年度에 매년 5%씩 總 1,800億 달러의 國防豫算減築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結果的으로 削減額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아직 유동적이지만 아뭏든 지금 까지 財政赤字額이 그래프·레드민법(財政均衡法)에 의한 目標額을 대폭 웃돌 것이라고 보고 있었던 만큼 一轉하여 同法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希望的이라 할 수 있다.

부시政權의 지도력에 대해 높은 評價를 내리는 사람은 적지만 레이건前大統領보다는 議會와의 조정에 能하다는 견해가 있는 등 經濟摩擦, 財政赤字削減 등에서 그가 가진 調停能力을 발휘해 주도록 期待하는 사람이 많다.

2. 日 本

가. 經濟環境

'90年度の 實質經濟成長率은 3.9%로 前年度 實績(推定) 4.8%보다 떨어지겠으나 개인소비와 民間設備投資의 雙頭馬車에 이끌리어 內需은 꾸준한 伸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美國經濟에 不況色이 짙어지면 美·日通商摩擦은 한층 어려워져 대형경기의 앞날에도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Needs Economy Maoro(巨視) 經濟의 모습이다.

작년에는 企業收益의 증가가 設備投資의 伸張을 높였으며 이의 需要擴大가 다시 收益環境

을 호전케한 『企業景氣』의 色彩가 짙은 伸張의 모습이었다. 금년의 消費는 消費稅의 부담이 경감해져서 작년보다 伸張하겠으나 投資는 企業의 수익에 天井感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3년 連續된 boom에 若干의 調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內需의 成熟度가 한층 깊어지는 '90年度 經濟는 市場動向, 貿易環境 등의 면에서 逆風이 거세지면 波亂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86年 11월을 바닥으로 한 현재의 景氣擴大가 금년 6월에 '58~'61년의 42개월에 걸친 好景氣를 추월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나 2차대전후 最長을 記錄한 '58년부터 '61년까지의 57개월에 걸친 好景氣를 능가하기 위해서는 逆風에 버티어나갈 수 있는 政策이 중요하다 하겠다.

貿易環境을 보면 美國經濟는 '89년의 實質3.0% 成長에서 '90년에는 1.7% 成長으로 減速한다. 이미 美國景氣의 先行指標인 乘用車販賣는 작년 10, 11월 2個月 連續 연을 800萬臺까지 감소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으며 金融緩和의 시기를 늦추게 되면 豫想보다 더 不況色이 짙어질 소지가 있다.

雇傭環境이 악화되면 그렇지 않아도 保護主義的인 주장이 쉽게 통하는 美國議會에서 對日

批判이 한층 높아질 것이 뻔하다. 이러한 움직임에 밀려서 美國政府는 美·日構造協議에서 日本側에 對해 成果가 나오기를 日本側의 讓步를 요구하겠지만 協議가 실패에 그친다면 美國議會에서 管理貿易을 주장하는 意見이 우세할 것이 틀림없다.

나. 需要動向

個人消費가 주도되는 環境에서 '90年度가 '89年度보다 好轉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物價라 할 수 있다. 家計調査에서 消費支出恢復이 지연되고 있는 要因의 하나는 消費者物價가 消費稅로 늘어난만큼 實質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며 금년 4월부터는 이러한 要因이 살아진다. '90年度의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前年度의 2.8%에서 1.4%로 低下한다. 綜合都賣物價 上昇率도 3.25%에서 0.6%로 떨어져 物價의 安定基調가 지속된다.

所得環境도 良好하다. 年例의으로 봄에 있는 賃金鬭爭(春鬭) 引上率을 5%臺 中盤으로 예상한다면 1인당 雇傭者所得의 伸張率은 4.6%로 前年度(4.4%)를 웃돈다.

이 結果 實質個人消費는 前年度의 3.2%에서 3.9%까지 伸張率이 높아져 成長率을 2%이상 밀어 올린다.

內需의 다른 한쪽의 바퀴인 設備投資는 우선 減速한다. 實質로는 前年度의 伸張率(15.5%)의 절반에 가까운 8.6%의 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前年度까지 實質設備投資는 3년 連續 2자리臺를 유지하고 있으며 實質GNP에 차지하는 比率도 23% 정도까지 높아지고 있다. 能力增強投資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다. 第1次 石油波動이후 製造業에서 本格的으로 設備更新을 하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년도 예도 年 20% 가까운 投資가 繼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企業의 投資意慾에 가장 큰 影響을 주는 經常利益의 伸張率도 6.7%로 前年度(10.3%)보다 낮아진다. 內容의 選別 등 慎重한 投資行動이 종전보다 旺盛해질 요인을 안고 있다.

그러나 円高이후 市場開拓을 內需로 전환한 企業의 構造調整努力은 앞으로도 꾸준한 투자를 재촉하게 된다. 情報化, 研究開發, 人力不足에 대응하는 성력화 등과 같은 투자는 長期的인 經營戰略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익의 변동에 따라 딱 잘라버릴 性質의 것이 아니다. 이와같은 投資를 쌓아 올리면 景氣가 多少 주춤하더라도 당장 넘어지는 일은 없다.

實質住宅投資는 前年度에 新設住宅建設의 戶數減少를 1호당의 면적 내지 高級化로 메웠으나 '90年度는 減少로 돌아선다. 賃貸住宅着工減少가 一部 家電製品의 販賣不振에도 影響을 주고 있어 耐久消費財를 중심으로한 個人消費에 미치는 影響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外需는 成長率이 계속 감소하지만 작년부터의 円下落으로 輸入數量 伸張率이 鈍化, 輸出數量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實質經濟成長率을 引下하는 程度가 줄어든다. 商品 및 서비스의 輸出에 海外로부터 받아 들이는 配當 등을 더한 實質輸出 등은 6.6% 伸張하여 前年度(13%)를 밀돌지만 輸入에다 海外로 나가는 施行代金支拂 등을 포함한 實質輸入 등은 前年度의 16.5%에서 8%까지 伸張率이 크게 둔화한다.

표. 1990년 일본 경제전망

구 분	1988	1989	1990
실 질 GNP (兆円)	335	351	365
명 목 GNP (兆円)	373	397	416
GNP 디플레이터 (%)	0.7	1.6	1.0
가 동 률 (%)	82.3	84.2	83.6
경 상 수 지(억弗)	773	552	591
환 율(¥/\$)	128.3	141.1	136.0

國際收支는 貿易黑字가 '89년도의 731億 달러에서 733億 달러로 微增, '88년도의 953億 달러 이하로 축소시키는 것은 踏步狀態에 있다. 經常黑字增加는 더욱 旺盛하여 '89년도보다 40億 달러 많은 591億 달러에 달한다. 對外 不均衡是正이 잘되지 않으면 美·日關係에도 影響이 나오기 때문에 日本政府의 輸入擴大 노력이 한층 요

청된다.

종합해서 보면 '90年度實質經濟成長率은 前年度보다 1 포인트 가까이 減速되겠으나 波亂要因이 微少하게 그친다면 '91年度以後, 다시 好景氣를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3. E C

'90년의 유럽經濟는 全體적으로 緩慢한 景氣鈍化의 길을 걸을 전망이다. 다만 各國間의 기복은 크다. 西獨은 계속 好況感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英國은 景氣後退 可能性을指摘하는 측도 있다. 이와 같은 環境속에서 東유럽의 改革이 유럽經濟全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焦點이 될 것이다.

EC委員會가 발표한 '90년의 經濟展望에 의하면 EC全體의 實質成長率은 國內總生産(GDP) 베이스로 3.0%('89年 豫想實績 3.5%)로 둔화한다. 景氣를 主導해온 消費나 設備投資 등이 작년까지의 세력을 잃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각국별로 보면 유럽經濟의 牽引車 역할을 해온 西獨의 實質成長率은 3.75%('89年 豫想實績)에서 3.25%로 둔화한다. 그러나 設備投資意慾은 여전히 왕성하며 減稅效果로 소비도 기대할 수가 있다. 유럽最高의 經濟 Performance라는 評價는 금년에도 변함이 없을 것 같다. 『'92年末의 EC市場統合이 가까워짐에 따라 西獨經濟가 강하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돋보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英國은 2.25%에서 2.0%로 떨어질 展望이다. 일부에서는 1%臺 前半이라는 豫測도 하고 있다. '81年 이래라는 高金利(市場貸出金利 15%)에 머리를 늘려 消費, 住宅着工 등이 차츰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總選舉가 예상되는 '91년에는 積極적인 景氣刺戟策이 취해져 다시 上昇 커브를 그리게 되겠으나 올해는 一時的이나마 減速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9년에 부풀어 오른 貿易赤字는 消費鈍化 등을 背景으로 '90년에는 縮小할 것 같다.

프랑스는 3.25%에서 변함 없으며 3年 連續

3%臺의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 物價도 比較的 安定되고 있으며 安定된 經濟狀態라 말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3.5%에서 3.0%로, 스페인은 4.75%에서 4.0%로 각각 鈍化할 展望이다.

'90년에 있어서 유럽經濟의 焦點은 自由化로 치닫는 東유럽情勢의 經濟效果라 말할 수 있다.

『西유럽으로서는 플러스效果가 크다』라는 意見一致를 보이고 있다. 특히 西獨에서는 東獨市民의 유입으로 住宅關聯을 중심으로 經濟成長率을 0.5% 끌어 올리는 效果가 있다는 예측도 나와 있다.

한편 西方側 기업이 東유럽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헝가리 등 一部를 제외하면 별로 없는 단계이며 '90年臺를 통한 中長期的인 과제라 할 수 있다.

7월에 있을 EC의 資本移動自由化도 큰 영향을 준다. 實施까지에는 源泉利子課稅의 통일과 같은 어려운 난관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自由化後에는 金融資産의 獲得, 防衛와 같은 각국의 金融競爭이 격화할 것이 뻔하다. 金融機關의 M&A(合併, 買收)도 한층 活潑할 것으로 보인다.

4. 아 시 아

'86年 이후 長期擴大基調를 유지해온 아시아 經濟도 減速傾向이 뚜렷해지고 있다. 각국 지역의 작년 實質經濟成長率을 보면 전년실적을 밑돈 國家가 많으며 올해에도 全體적으로 成長率이 더욱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急成長으로 인한 調整期 내지 安定期로 접어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한편에서 物價上昇率은 여전히 高水準을 지속하고 있으며 인플레이 對策을 중시하는 經濟運營이 불가피하다.

'89年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新興工業國(NICS)의 經濟成長이 鈍化, 反對로 泰國, 말레이시아 등 東南아시아 經濟聯合(ASEAN)이 두드러지게 發展, 年間平均成長率에 있어서는 ASEAN이 NICS와 거의 어깨

를 나란히 하는水準까지 왔다. 아시아 地域의 經濟成長主役은 교체되고 있다.

표. 아시아 각국의 실질경제성장률(%)

연도	1988	1989	1990
대만	7.8	7.1	7.2
싱가폴	11.0	8.5	7.5
한국	12.2	7.2	7.4
홍콩	7.4	4.5	4.0
태국	11.0	10.0	8.5
말레이시아	8.7	6.9	6.1
인도네시아	5.5	5.6	5.7
필리핀	6.8	6.0	6.6
중국	11.2	6.6	6.5

주) '88년은 실적, '89, '90년은 전망

아시아 NICS는 임금의 大幅上昇, 換率(對달러)의 상승, ASEAN의 追擊 등에 직면, 內需擴大, 産業構造의 高度化 등 構造調整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ASEAN은 勞動集約인 直接投資의 受容 등 外向인 工業化로 經濟成長을 높이므로써 자금의 순조로운 유입이 가능해지고 있다.

NICS內에서는 韓國, 홍콩의 不振이 두드러지고 있다. NICS의 우두머리격인 韓國은 元貨上昇에 勞務코스트의 大幅上昇까지 겹쳐 수출이 鈍化, '88년까지의 3년 連續 2자리 성장에서 一轉하여 작년에는 6~7% 成長으로 떨어졌다. 금년에도 同水準의 성장을 정부는 내다보고 있으나 당국의 景氣浮揚, 賃金引上 抑制策에도 不拘하고 豫斷을 不許하는 실정이다.

홍콩은 中國政情의 混亂과 中國政府의 經濟緊縮의 餘波로 작년에는 年초의 公式 成長 展望의 6%에서 大幅後退가 불가피했다. 금년도 中國政勢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臺灣經濟는 여전히 順調롭게 繼續 확대하고 있으나 돈이 남아도는데 따른 株式, 不動産時勢의 急騰, 對美黑字의 擴大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ASEAN 각국은 '90년에도 泰國를 頂點으로 호조를 지속할 것 같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아시아 NICS에 泰國, 말레이시아

를 더한 6개국, 地域을 다이내믹, 아시아經濟群(DA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다만 '86년의 2月革命이래 순조로운 回復過程을 거치고 있는 필리핀經濟는 작년 12月の 叛亂事件으로 政權基盤의 불안정이 노출되어 海外로 부터의 融資·投資에 제동이 걸리고 7월에 합의한 多國間 援助計劃(MAI)에 대해서도 再檢討機運이 나오고 있다.

작년 6月の 天安武力制壓事件으로 經濟制裁을 받아 直接投資도 中斷狀態에 있는 中國은 '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嚴格한 緊縮政策의 영향으로 심한 不況에 직면하고, 外貨事情도 深刻하다. 美國을 비롯한 西方諸國과의 關係改善이 이루어져도 어려운 經濟運營이 불가피하다.

5. 蘇聯 및 東歐圈

작년 8月 폴란드의 非共產黨主導의 內閣發足を 계기로 불어닥친 東歐圈 國家의 本격적인 改革은 눈감쩍하는 사이에 東유럽으로 擴大, 루마니아에서도 新政權이 탄생했다. 美國을 비롯한 西方諸國도 蘇聯·東歐圈國家의 政治的 改革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經濟面에서는 各國이 同결같이 樂觀할 수 없는 狀況에 있다.

蘇聯經濟가 直面하고 있는 最大의 課題는 消費物資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작년 가을이후 담배, 스타킹, 비누와 같은 기초적인 消費物資에 이르기까지 物資不足이 확대되고 있다. 고르바초프議長이 추진한 페레스트로이카(改革)이 初期段階에서 生産財의 生産에 힘써 消費財의 生産增強을 게을리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90年以後는 消費分野에도 힘쓸 방침으로 있다.

다만 오랜동안 지속된 엄한 겨울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防寒具라든지 石炭 등도 不足樣相을 보여 國民의 불만은 쌓이기만 한다. 이와 같은 物資不足을 극복하면서 여전히 높은 實質成長을 실현할 수 있을런지가 '90년에 있어서 蘇聯經濟의 초점이 되고 있다.

多額의 累積債務를 안고 있는 헝가리에서는 '89年 1月부터 國外旅行을 完全自由化했기 때

표. 소련 및 동구권의 국민소득 성장률(%)

국 가	연 도	1987	1988	1989
소 련		3.3	5.0	4.5
동 독		4.0	3.0	4.0
폴 란 드		1.7	4.5	3.6
체 코		2.0	3.0	2.2
헝 가 리		4.1	0.5	
루 마 니 아		4.8	3.2	
불 가 리 아		5.1	6.2	6.2

주) '87년은 실적, '88년은 실적, '89년은 계획

문에 이웃 오스트리아로의 쇼핑旅行이急增, 經常收支가惡化됐다. 上半期の 經常收支赤字 10億 달러 중 3億 5,000萬 달러는 純旅行收支의 赤字 擴大에 기인한 것이다.

債務에 더하여 인플레이까지 겹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個人所得의 上昇率에 天井을 설정하고, 預貯金, 融資의 實質利率을 인플레이率 이상으로 하는 한편에서 輸入을 自由化한다는 經濟政策이 불발에 그쳐 年率의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1,000%을 넘어서게 됐다. 루마니아 이외의 東歐圈諸國은 한결같이 累積債務에 苦心하는 한편 적든 많은 인플레이나 物資不足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狀況을 타개하기 위한 有效策으로서 각국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外國資本의

積極導入이다. 合作企業制度는 '88年에서 '89年에 걸쳐 잇달아 整備되고 外國資本과의 合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東獨만이 남았으나 東獨도 今年 上半期에 이 제도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蘇聯에서는 關稅의 免除, 輸出入의 簡素化 등과 같은 特典을 부여하는 經濟特區制度를, 今年중에 나훗카, 노브고로도, 브이보르그 등 3都市에서 발족시킬 예정이다.

西方先進諸國에서는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蘇聯·東歐圈諸國의 개혁을 積極 지원하고 나섰다. 부시 美國大統領이 작년에 訪門한 폴란드에 總額 10億 달러의 通貨安定化基金을 설정한 것은 이의 代表的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폴란드, 헝가리 支援國 閣僚會議에서는 이의 對象國을 東獨, 체코에도 擴大해 나아가기로 決定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支援이 蘇聯, 東歐圈諸國의 어려운 經濟狀況改善에 어떻게 이어져 나아갈 것인가가 큰 포인트가 될 것이다.

今年는 東歐圈의 많은 國家에서 새로운 政治體制가 實質的으로 始動하는 해가 되겠으나 經濟改革은 作年の 政治改革과 같이 短期的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꾸준한 經濟政策에 어디까지 國民의 支持를 繼續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의 成敗는 新政權의 政治的 指導力 여하에 달려있다 하겠다.

